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 창출 및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 중 기업가의 특성 비교 중심으로-

정대용¹, 첨 희*¹, 한관섭¹

¹송실대학교 대학원 벤처중소기업학과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ctancy on Entrepreneurial Outcome and Expect Growth Intentions -Comparative Study between Korea and China Entrepreneur-

Dae-Yong Chung¹, Xi Zhan^{1*} and Kwihan-Seop Han¹

¹Department of Venture and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Soongsil University

요 약 창업에 대한 기대가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본 연구목적은, 현재 중국 및 한국에서 기업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창업 초기에 가졌던 기대감과 창업 이후 성장의도에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양국 간의 차이를 발견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기업가의 기대는 창업에 대한 기대로, 창업창출 및 성장의도는 기업가의 주도적 생각으로 정의되었다. 총 489 개 표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제시된 상위가설은 모두 채택되었다. 즉 양국 기업가의 창업에 대한 기대는 창업 창출, 그리고 성장의도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양국 기업가의 특성 간에 서로 차이가 비교했으므로, 창업에 대한 기대는 창업창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 기업가들보다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면서 창업창출은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양국 기업가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In this paper, the relation model for three important entrepreneurial entities are studied based on the expectation theory for entrepreneurs. The three entrepreneurial entities include entrepreneurial expectancy, entrepreneurial outcome and expect growth intentions. In this study, the entrepreneurial expectancy is defined as the expectation about establishment, while entrepreneurial outcome and expect growth are related to entrepreneur's dominant idea for enterprises' operation and management.

Based on the investigation data via questionnaire for 489 subjects, the relation model hypothesis for the three entrepreneurial entities is test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arguments can be made that entrepreneurial expectancy can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alization of successful entrepreneurial activities, and entrepreneurial outcome may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realization of expect growth intentions. Therefore, a kind of mutual promotion model can be observed among the three entrepreneurial entities. In addition, the proposed relation model is applied to both Korean and Chinese entrepreneur, and their differences are compared and discussed.

Key Words : Entrepreneurial Expectancy, Entrepreneurial Outcome, Expect Growth Intentions, Korea Entrepreneur, China Entrepreneur

본 논문은 2012년도 송실대학교의 연구비 후원으로 수행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 Xi Zhan

Tel: +82-10-5528-8668 email: zhanxi@naver.com

접수일 12년 03월 12일

수정일 (1차 12년 04월 30일, 2차 12년 05월 07일)

게재확정일 12년 05월 10일

1. 서론

창업은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사회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중요한 활동이다[9]. 박철(2010)연구에서 한국의 창업성향이 가장 낮았고, 몽골과 캄보디아가 높은 편이었으며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창업성향이 높았다는 연구 결과는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한국은 80년대 왕성하였던 기업가정신이 한국경제의 기초를 다져왔지만 지금 상황에서 한국경제에 고용 없는 성장을 뛰어넘는 기업가적 경제로 전환기 위해서 창업창출은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중국은 경제 강국으로 전환되고 있는 중심에서 뛰어난 기업가정신을 가진 기업가(Entrepreneur)들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21], Lau와 Buseitz의 연구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환경을 제대로 인식하는 기업가정신이 중국기업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변수로 나타났다[11].

지금까지 한·중 양국의 비교 연구를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창업가에 대해 한·중 양국 간의실제 비교 연구는 정대용·양준환(2009) 뿐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관련 연구들의 발전적 흐름을 살펴 보면서 정대용·침희(2011)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여 기대이론을 이용해서 최근 새롭게 등장한 창업창출 및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살펴보기 위하여, 한국 및 중국에서 경영하고 있는 기업가를 대상으로 수집한 설문지 총 489부를 분석하였다. 양국 기업가들이 갖고 있는 창업에 대한 기대와 실제의 창업창출활동을 최종적으로 갖고 있는 성장의도 간에 어떻게 영향 미치는가에 따른 관계모형의 특징차이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기업가적 기대와 창업창출

인간의 동기과 행동관점에서 본 기업가적 의도와 기업가적 인지, 그리고 기업가적 노력을 하계하는 주요한 동기인 기업가적 결정을 중심으로 창업의 전 과정에서 무엇이 매우 중요하고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크다. 일반적으로 직업으로서의 창업가는 초기창업의 첫 성공을 중요시하는바, 그 이유는 처음으로 체험 학습한 암묵지 형태의 기본신념들은 기업의 전 과정에 걸쳐 발휘되며 이후 다양한 요인들을 결합시켜 성공과 실패를 통한 체험들은 계속 수정되고 재해석되어 평가하면서 계속적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3].

기대란 과거의 경험과 지식이 미래를 예측하는 사용되 는 척도이고 직무의 미래의 상태에 대한 믿음이다. 기업가적 기대는 개인 경험, 창업, 타인으로부터의 정보 또는 다른 믿음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10]. 또한 기업가정신문헌을 살펴보면, 본인마다 가진 기술과 능력이 새로운 모험에서의 성공을 이루기에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들 개개인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동기부여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자신감이 결여된 기업가들은 새로운 모험에서의 위험을 덜 감수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지된 위험은 수반된 전략 사건의 한 기능일 수도 있다[11].

2.2 창업창출과 성장의도

창업창출이란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조직을 창조하는 것으로 처음 생각하는 사업아이디어로부터 많은 시행착오, 환경에 대한 학습 및 연구, 끊임없는 개선을 통해 발견한 사업기회로 만들어 가는 길고 지루한 여정과 같은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은 기업 성공의 중요한 지표이자 국가경제발전의 필수적인 선행요인으로 간주된다. 기업의 성장과정을 발전단계별로 구분하면 창업 단계 및 지속단계, 그리고 도약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소기업 성장은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에 의존한다 [8]. 소기업 관리자의 성장관리 역량은 기업 규모의 증가와 부응하여 내부적으로 조직 개편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기회를 발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 하지만 모든 기업가들이 창업이후에 기업의 성장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것만은 아니다[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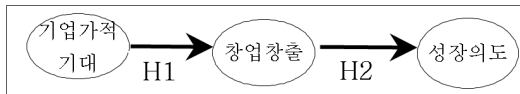
한편, 정대용·침희(2011)는 기대이론의 1차 결과기대(노력-성과)를 적용한 중국기업가 대상 실증연구에서, 창업은 성장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이전에 이루어졌던 이론중심의 연구에서 벗어나 기대이론의 1차 결과를 실증적으로 입증하여 주고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선행연구에서 성장의도는 창업창출의 영향을 받고, 창업창출에 영향을 주는 기업가적 기대는 전통적으로 신생기업의 창업창출뿐만 아니라, 기업의 특성, 생존 및 수행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어왔다.

3. 연구 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중국의 놀라운 경제성장규모와 성장율을 보면 지금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중국은 최대의 교역규모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기업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창업가의 창업창출 및 성장의도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가 국내에서도 최근 발표되었다(정대용·침희, 2011). 특히 개혁·개방정책 30년을 넘어서고 있는 중국과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한국에서 중소기업 창업가의 창업 과정상의 특성을 비교하는 본 연구는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 설정

본 연구에서는 Gatewood & Shaver의 연구(1991)를 참조하여 살펴 본 연구는 노력-성과-결과 모형에 근거한 가정으로, 기업가가 창업창출 관점에서 본 제1차 결과만을 제한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또한 정대용·침희의 연구(2011)에서 중국기업가만 분석하던 것을 확장시켜 한국과 중국 간에 차이 있는 가를 살펴보려는 가설 1-1을 설정했다.

- 가설 1: 기업가적 기대는 창업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1-1: 한·중 기업가적 기대는 창업창출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없을 것이다.

나아가 본 연구는 창업창출과 성장의도 간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그리고 한국과 중국 간에 차이가 있는 가를 분석하기 위해 다음의 가설을 설정했다.

- 가설 2: 기업가의 창업창출은 성장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2-1: 한·중 기업가의 창업창출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 차이가 없을 것이다.

4. 연구방법 및 실증분석

4.1 자료수집 방법 및 표본 특성

본 연구의 자료는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개발·작성된

설문지를 한국 및 중국의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배포·회수하였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소재한 한국기업가와 중국의 광둥, 심천지역에 소재한 공장을 직접 찾아가서 각각 설문지를 수집했다. 불성실한 응답이 포함된 설문지를 제거하여 유효한 설문지 총 489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한국기업가로부터 받은 설문지는 222부, 중국기업가로부터 받은 설문지는 1차에서 142부, 2차 추가로 125부 수집했고 총 267부이다.

선행연구결과들을 근거로 하여 도출된 가설 및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개발하여 사용된 척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게끔 일부 수정·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또한 한·중 양국기업가들의 개인특성과 인구·통계학적 측정문항을 추가하였다.

수집된 표본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 [표 2]와 같다. 우선 기업설립 년수 별로 살펴보면, 한국표본기업의 경우 10년 이상의 79개(35.6%) 제일 많고, 중국표본기업의 경우 3-5년 97개(36.6%) 제일 많다. 종업원 수에서 한국기업은 5명 이내와 5-20명의 경우 제일 많다 175개(78.8%), 중국기업은 5-50명인 경우가 제일 많아 132개(49.5%)이다. 그리고 성별은 남성의 경우 한국기업은 180개(81.1%), 중국기업은 184개(68.9%)이다. 기혼자의 경우 한국기업은 199개(89.6%), 중국기업은 211개(79.0%)이며, 창업 전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가 한국기업 167개(75.2%)의 반면에 중국기업 창업경험이 있는 경우가 164개(61.4%)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한국기업은 제조업이 72개(32.5%), 반면에 중국기업은 서비스업이 61개(22.9%)로 제일 많았다.

[표 1] 한국 표본기업가의 일반적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 of the Korea Sample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180	81.1	결혼	미혼	23	10.4
	여	42	19		기혼	199	89.6
창업 경험	없다	167	75.2	창업 시 연령	30세 미만	29	13.1
	있다	55	24.8		30-35세	50	22.5
기업 년수	3년미만	57	25.7		35-45세	116	53.1
	3-5년	32	14.4		45세상	27	12.2
	5-10년	54	24.3		5명 이내	90	40.5
	10년 이상	79	35.6	5-20명	85	38.3	
업종	섬유업	40	18.0	종업원수	21-50명	40	18.0
	제조업	72	32.5		51-100명	7	3.2
	정보통신	11	5.0		100명이상	-	-
	건설업	15	6.8	학력	고등학교 이하	39	17.6
	전자전기	27	12.2		전문대	60	27.0
	유통운송	10	4.5		대학교	108	48.6
	서비스업	47	21.2		대학원	15	6.8
Total		222	100	Total		222	100

[표 2] 중국 표본기업가의 일반적 특성
[Table 2] Characteristic of the China Sample

항목	구분	빈도	%	항목	구분	빈도	%
성별	남	184	68.9	결혼	미혼	56	21.0
	여	83	31.1		기혼	211	79.0
창업 경험	없다	103	38.6	창업 시 연령	30세 미만	140	52.4
	있다	164	61.4		30-35세	66	24.7
기업 년수	3년미만	77	28.8		35-45세	37	13.9
	3-5년	97	36.3	45세상	5	1.9	
	5-10년	68	25.5	종업 원수	5명 이내	45	16.9
	10년 이상	25	9.4		5-20명	68	25.5
	업종	섬유업	57		21.3	21-50명	64
제조업		42	15.7		51-100명	43	16.1
정보통신		24	9.0	100명이상	47	17.6	
건설업		25	9.4	학력	고등학교 이하	17	6.4
전자전기		41	15.4		전문대	58	21.7
유통운송		17	6.4		대학교	147	55.1
서비스업		61	22.9		대학원	45	16.9
Total		267	100	Total		267	100

4.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의 측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에 사용된 구성개념들에 대한 측정도구는 기존 선행연구를 근거로 개발하였다. 기본적으로는 기존 선행연구의 측정항목들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조사대상의 특성과 기업현장의 사정에 맞게끔 일부 단어나 문맥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배포되기 전에 사전 검토를 통해 현장의 특성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다.

[표 3] 변수명의 정의 및 측정 문항 수
[Table 3] Definition of variable

변수	구성 요소	변수정의	선행연구	문항수
기업가적 기대	특정 결과 성취 믿음	특정 행동을 통해 특정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	Gatewood(2002)	5
창업창출	삶의 목표성취	창업창출은 삶의 중요한 목표를 성취하는데 도움	Gatewood (2002) 정대용·침희 (2011)	1
성장 의도	자원의 집적화 기술개선 의도 등	최고경영자의 성장에 대한 의지	Human and Mathews (2004) 박동수(2007) 정대용·침희 (2011)	4

먼저 기업가적 기대는 앞서 언급한대로 특정 행동을 통해 특정 결과를 얻을 것이라는 믿음[10]을 중시하였다.

기대감(Expectancy)은 특정수준의 노력이나 행동이 1차 수준의 결과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믿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대를 측정하기 위해 5개의 Likert 5점 척도 질문(전혀 동의하지 않음 ~ 완전히 동의함)을 활용했다. 예를 들면 설문내용에 대하여 “내가 열심히 일하면 사업을 성공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 나의 과거 경험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매우 가치 있는 역할을 할 것이다. 전반적으로 나의 기술과 능력은 사업을 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사업을 시작하는 데 노력을 경주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나의 근면, 성실, 솔선수범은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의 한 문항을 추가했다.

다음으로 창업창출의 실현은 사업 시작은 1차 결과와 2차 결과 간의 인식된 관계이다. 1차 결과는 본질적으로 목표인 반면(예를 들어 창업), 2차 결과는 기타 결과를 성취하는 데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업가가 사업 시작을 선택한 이유이다[10]. 본 연구에서는 단일 항목을 활용하여 이를 측정했다.

마지막으로 박동수(2007)의 연구를 근거로 “성장 의도는 크게 자원의 집적화 의도, 기술적 개선의도, 시장 확장 의도로 구분”으로 정의하였으며, 기업가의 성장의도 평가를 리커트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4.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한국 기업가와 중국 기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기대, 창업창출 및 기대간의 관계모형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 모델링(Structural Equation Modeling)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도구의 타당도 평가를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각 측정변수들의 알파계수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신뢰도를 평가하였다. 분석에는 AMOS 7.0과 SPSS 15.0을 사용하였다.

5. 실증분석 결과

5.1 측정항목의 평가

측정 변수의 신뢰성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확인하였다. [표 4]은 각 변수의 신뢰성 분석 결과이다.

[표 4] 변수의 신뢰성 분석
[Table 4] Reliability Analysis

개념	문항 수	Cronbach's α
창업에 대한 기대	3	.818
창업창출	1	-
성장의도	2	.817

[표 4]에서 보듯이 창업에 대한 기대는 .818로 나타났으며, 성장의도는 .817로 나타나서 변수 모두가 신뢰도 확보의 기준으로 논의되는 기준치(.60)보다 높게 나타났다. 단 창업창출은 단일 문항으로 변환 측정했기 때문에 신뢰도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5.2 타당성 분석

측정도구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에서 최우도추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측정변수의 집중타당성과 판별 타당성 확인을 통해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확보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타당성 분석과정에서도 신뢰성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신뢰성이 확보된 모든 문항들을 함께 고려하여 분석한 후 타당성을 저해하는 문항들을 제거해 나가면서 타당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취했다.

[표 5] 변수의 타당성 분석

[Table 5] Validity Analysis

개념	측정 변수	표준화 요인적재치	S.E	C.R. (P)	SMC	개념 신뢰도	AVE
창업에 대한 기대	기대3	.717			.514	0.879	0.605
	기대4	.836	.077	15.309 (***)	.699		
	기대5	.772	.072	14.846 (***)	.596		
성장의도	성장의도1	.767			.588	0.859	0.7
	성장의도2	.901	.097	12.189 (***)	.812		

Model Fit: $X^2=5.2$, $df=4$, $p=.266$, $GFI=.996$, $AGFI=.984$, $CFI=.999$, $RMSEA=.025$

*** $p < 0.01$

[표 6] 각 변수 별 판별타당성 분석

[Table 6] Distinction Validity Analysis

변수	창업에 대한 기대	성장의도
창업에 대한 기대	.605	
성장의도	.342	.7

주) 대각선은 AVE값, 아래 값은 두 변수 간 상관계수의 제곱 값.

분석결과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기준치를 모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측정변수의 요인적재량도 기준치인.60을 모두 상회할 뿐만 아니라 C.R.값($|C.R.| > 1.96$)과 p값($p < 0.01$)도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변수의 집중타당성 및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표 6] 참조).

5.3 상관관계 분석

앞서 살펴 본대로 본 연구에 투입된 변수들은 수렴타당성 및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변수들 간의 관계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각 변수들 간에는 대체로 높지 않으면서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변수들 간의 판별성을 저해하는 정도는 아니며, 다중공선성에도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타나 가설검증에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변수의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Table 7] Correlation Analysis

변수	평균	표준편차	창업에 대한 기대	창업 창출	성장의도
창업에 대한 기대	4.34	.678	1		
창업창출	4.38	.782	.574**	1	
성장의도	4.07	.804	.482**	.470**	1

**상관계수는 0.01수준(양쪽)에서 유의합니다.

5.4 가설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는 원자료가 활용되었으며, 최대우도법을 적용하였다.

[표 8] 측정 변수 간의 경로 관계분석

[Table 8] Course Relationship Analysis

경로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 E.	C.R.	P
창업창출←기대	.886	.853	.070	12.586	***
성장의도←창업창출	.806	.690	.082	9.791	***

Model Fit: $X^2=8.816$, $df=7$, $p=.266$, $CMIM/DF=1.259$, $RMR=.011$, $GFI=.994$, $AGFI=.982$, $CFI=.998$, $RMSEA=.023$

*** $p < 0.01$

먼저 분석모형의 적합도를 [표 7]에서 볼 수 있듯이, 모든 변수들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모형 수용에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한편, [표 8]에 보는 것과 같다, 창업에 대한 기대와 창업창출 간의 관계 분석결과를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창출에 미치는 영향은 .853로 아주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창출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창업창출은 성장의도 간에는 유의확률 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창출이 성장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69로 상당히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창업창출이 성장의도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중 기업가간 차이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 집단 간 비교 분석을 실행했다. [표 9], [표 10]에서 보듯이 가설 1-1을 기각하고 가설 2-1을 채택한다. 왜냐하면 제약 모형과 Free모형을 각각 비교할 때 두 모형의 자유도 차이가 1이고, X^2 값의 차이가 3.84보다 크면 두 집단 차이 있기 때문이다.

[표 9] 양국 기업가 간의 경로관계 비교분석 결과
[Table 9] Course Relationship Compare Analysis

경로	모형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한국	중국	P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S.E.		C.R.				
창업창출 ← 기대	free	1.043	.89	.938	.853	.090	.070	11.6	12.6	***
	제약	.954	.95	.932	.862	.056	.056	17.2	17.2	
성장의도 ← 창업창출	free	.742	.81	.652	.690	.099	.082	7.47	9.79	***
	제약	.770	.78	.652	.688	.103	.077	7.51	10.2	***

*** p < 0.01, ** p < 0.05, * p < 0.1.

[표 10] 비교분석 Model Fit
[Table 10] Compare Analysis Model Fit

		X^2	df	p	RMR	GFI	AGFI	CFI	RMSEA
Free		14.770	14	.269	.012	.992	.977	.999	.017
제약	경로1	18.692	15	.228	.017	.991	.976	.998	.019
	경로2	17.019	14	.318	.015	.992	.978	.999	.014

먼저 경로 1(즉 창업에 대한 기대 → 창업창출)에서 두 집단을 비교해보면 $df=1$, $\Delta X^2=3.922(>3.84)$ 이다. 따라서 한국 및 중국의 기업가들이 기대가 창업창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창출에 미치는 영향에서 한국은 중국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다. 즉, 한국 기업가들은 창업에 대해 기대가 높아야만 창업창출시도를 많이 한다. 반면에 중국 기업가들이 창업에 대해 기대가 높지 않아도 창업창출을 하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경로 2(즉 창업창출 → 성장의도)에서 두 집단의 차이가 있지만, $\Delta X^2=2.249(<3.84)$ 이다. 따라서 두 나라 간에

기업가 행동특성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론

본 연구는 기대이론의 틀을 이용해서 기업가들이 창업에 대해 기대감 및 창업창출의 실행, 그리고 기업성장의도 삼자 간의 관계모형을 연구하였다. 특히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한국과 중국의 기업가 창업행동 특성을 비교하는 탐색적 연구에 따른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기존의 기업가 특성과 관련된 연구결과들이 일관되게 나타내지 못했던 노력-성과와의 관계를 세 변수 간의 긍정적인 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이론적 및 실증적 연구결과의 공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기대이론 1차 결과를 이용해서 창업에 대한 기대-창업창출, 창업창출-성장의도 간의 상호작용효과를 각각 보여줌으로써 세 변수간의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 성과가 갖는 의의가 높다.

첫 번째 가설인 “기업가의 창업에 대한 기대가 창업창출에 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고 한·중 비교 분석에서는 한국 기업가들이 중국 기업가들보다 창업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하게 창업창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국 기업가들은 창업에 대해 기대감을 커야만 창업창출 활동시도를 할 것이라는 의미가 향후 정부의 지원정책 개발에 도움을 가져다줄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인 “기업가 창업창출이 기업의 성장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이 채택되었지만 양국 간의 비교 분석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양국 모두 창업창출을 시도할 경우 성장의도를 가지고 있는 목표에서 동일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연구결과는 이전에 선행되었던 이론 중심의 연구보다 더욱 발전한 실증분석 연구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과 이론적 공헌을 찾아볼 수가 있다. 반면에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실증연구가 그러하듯이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광활한 중국의 지역적 특성상 전체 지역이 아닌 일부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가들만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였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넓은 지역에 걸친 다양한 기업가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둘째, 기업가의 창업행동 특성을 맞게끔 구분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창업경험이 있는 기업가들과 반

대로 창업경험을 갖지 않은 기업가들 간에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심화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기대이론의 1차 결과만 가지고 기업가들의 특성을 분석했고, 기대이론의 2차 결과까지를 함께 살펴 분석하지 못한 점이 한계이다. 때문에 기대이론 전반을 커버한 동적모형의 행동모델을 설명하기에는 아직 부족함이 따른다. 향후 연구에서는 기대이론의 1차 및 2차 결과를 함께 고려하고 이외로 다양한 추가 변수들 간의 관계모형까지 확대시켜 살펴보길 기대한다.

References

- [1] Ajzen, "Attitudes. Traits, Actions Dispositional Prediction of Behavior in Social Psychology",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0, pp.1-63, 1987.
- [2] Cheol Park, You Rie Kang, "A Comparative Study on Entrepreneurship Among Korea, China, Mongolia, and Cambodia", *Asia Pacific Journal of Small Business*, 32(2), pp.225~246, 2010.
- [3] Chung Dae-Yong, "Asan Chung Ju-Young's Entrepreneurship", *Asan chung Ju-Young and Korea Economy Development model*, 1(1), pp.29-60, 2011.
- [4] Chung Dae-Yong and Roh Kyoung-Ho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 Characteristics Behavior and Network Types on Firm Performance as Growth Step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0(11), pp.3354-3362, 2009.
- [5] Chung Dae-Yong and Yang Jun-Hwan, "An Empir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Mode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ing and Perceived Firm Performance of SEMs of Korea and China", *International Management Review*, 13(2), pp.27-56, 2009.
- [6] Chung Dae-Yong and Xi Zhan, "An Exploratory Study on the Effects of Entrepreneurial Expectancy of China's Entrepreneur upon Start-up Business and Growth Intention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2(11), pp.4881-4887, 2011.
- [7] Dea-Yong Chung, Xi Zhan, Kwihan-Seop Han, "The Effects of the Entrepreneurial Activities on Entrepreneurial Outcome Satisfaction Mediated by the Growth Intentions-Focused of the Characteristics between Korean and Chinese Entrepreneurs-", *Journal of the Korea Entrepreneurship*, Vol 7 , NO.1, 2012.
- [8] Davidsson, P. and M. Henrekson, "Determinants of the Prevalence of Start-ups and High-Growth Firms", *Small Business Economic*, 19(2), pp.81-104, 2002.
- [9] Drucker, P, *Innovation and entrepreneurship: Practice and principles*, New York: Harper and Row, 1985.
- [10] Gatewood, J. Shaver, J. B. Powers, and W. B. Gartner, "Entrepreneurial Expectancy, task Effort and Performance",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7(2), pp.187-206, 2002.
- [11] Lau, C. M. and L. W. Busentz, "Growth Intentions of Entrepreneurs in a Transitional Economy: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6(1), 2001.
- [12] Lee Kyung-Geun, "Expectancy Theory as the Model for Explaining Union Participation", *Korean Business Review*, 3(1), pp.61-78, 2010.
- [13] Linda F. Edelman, Canadida G. Brush, "Start-up Motivations and Growth Intentions of Minority Nascent Entrepreneurs", *Journal of Small Business Management*, 48(2), pp.174-196, 2010.
- [14] Mitchell, J. R, "Expectancy models of job satisfaction, occupational preference and effort: A theoretical, methodological, and empirical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87(12), pp.1053-107, 1974.
- [15] Olson, Roese, and Zanna, "Expectancie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Eds. New York: Guilford Press, pp.211-238, 1996.
- [16] Park Dong-Soo, "An Exploratory Study on Entrepreneurship and Its Effects on the Growth Intention in Venture Business", *Korean Academic Associ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20(6), pp.2979-3011, 2007.
- [17] Shane, S. A. and S. Venkataraman, "The Promise of Entrepreneurship as a Field of Research",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5(1), pp.217-226, 2000.
- [18] Timmons, J, *New Venture Creation: Entrepreneurship for the 21st Century*, Fourth edition, McGraw-Hill, Boston, 1994.
- [19] Vroom, V. H., *Work and Motivation*, New York: John Wiley, 1964.
- [20] Johan Wiklund and Dean Shepherd, "Aspiring for, and Achieving Growth: The Moderating Role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4(13), pp.1307-1314, 2003.
- [21] Zhang Shen-Wei, "Entrepreneurship and Motivation for Start-up Entrepreneurs in China", *East-Asian Humanities*, 16, pp.361-377, 2010.

정 대 용(Dae-Yong Chung)

[정회원]



- 1988년 12월 : 한국 고려대학교 경영학 박사
- 1983년 3월 ~ 현재 : 한국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부 교수
- 2001년 8월 ~ 2002년 7월 : 미국케네소우 주립대학교 초빙교수
- 2007년 7월 ~ 2008년 12월 : 한국창업학회 회장

- 2011년 3월 ~ 현재 : 한국 숭실대학교 특임부총장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전략, 사회적 기업, 사회적 자본, 리더십

첨 희(Xi Zhan)

[정회원]



- 2008년 8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석사(벤처중소기업학과)
- 2008년 9월 ~ 현재 : 한국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 중국기업가, 사회적 자본, 리더십

한 관 섭(Kwhan-Seop, Han)

[정회원]



- 2009년 3월 ~ 현재 : 한국 숭실대학교 벤처중소기업학과 박사과정 수료

<관심분야>

기업가정신, 창업